

[서평]

가볍지 않은, 오히려 너무나 무거운: 스테프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잇 사가’*

Stephenie Meyer, *Twilight & New moon & Eclipse
& Breaking Dawn* New York:
Little Brown, 2005, 2006, 2007, 2008.

이혜진

(동의대학교)

뭐 이런 곳이 다 있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소도시 오래 전 전설이 살아 숨 쉬고 신비로운 괴물들이 어슬렁거리는 이런 세상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달리 말해 황당무계하게만 보이는 동화도 실은 모두 확고한 진실 어딘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일까? 이 세상엔 원래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과 그것이 아니라면 온통 마법과 유령 이야기만 존재한다는 의미일까? (*New Moon* 293-94)

스테프니 메이어(Stephenie Meyer, 1973~)가 이끄는 가상세계는 현실과 멀리 떨어져 ‘옛날 옛적의’ 전설을 담보하는 과거 고착적인 곳이 아니다. 동화를 전면에 내세우기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 현실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을 빌어 전통적이고 환상적이며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 트와일라잇 네 작품 시리즈를 ‘트와일라잇 사가(saga)’라고 한다. 이 글에서 작품 인용은 미국 리틀 브라운(Little, Brown and company)사의 영어판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경유해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유효한 실재적 진실이 우회적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평범한 것, 기이한 것, 오래된 것 같지만 새로운 관념들이 함께 뒤섞여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주 부각시키는 그녀를 따르면 이미 상정된 이분법은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자신의 뱀파이어가 기존의 것을 닮을까 염려스러워 관련 작품을 읽지 않았다는 메이어의 처녀작 『트와일라잇』(*Twilight*, 2005)에 분명 전통의 흔적은 있지만 독자들을 압도할 만한 엄청난 독창성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 번 들어봐서 익숙한데다 별다른 것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다시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메이어의 공간은 사실과 허구, 믿음과 불신, 찬사와 조롱, 사랑과 증오가 화해에 이르러 사이 좋게 공존하는 곳이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의 『교양인의 책읽기』(*Stories and Poems for Extremely Intelligent Children of All Ages*, 2001)에 관한 서평에서 냉소적 어조로 이런 말을 했다. “모든 문학 작품은 일종의 표절, 이전 시도들에 대한 창조적 오독이었다.”¹⁾ 이것이 바로 예술이나 문학이 소멸되지 않고 비슷한 듯 다른 텍스트로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자주 접했던 소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상황을 꼬이게 하는 작가적 역량이 독자들을 흡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트와일라잇 현상 메이어의 ‘트와일라잇 사가’는 소설로 출간된 후, 2008년을 시작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뒤 이은 영화가 소설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그 덕에 또 다시 소설이 팔리는 상호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 작품은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인 김영 작가는 메이어와 협력하여 원작 소설에 기초해서 길고 복잡한 스토리라인에 깊이 있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만화,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을 발간하기도 했다. 열정적인 팬클럽 내에서는 독자들이 원작의 스토리라인

1) Terry Eagleton, *Figures of Dissent: Critical Essays on Fish, Spivak, Žižek and Others* (London: Verso, 2003), p. 262에서 재인용.

을 따온 뒤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각색해서 『뱀파이어 석』(*Vampire Suck*)과 같은 일종의 패러디, 팬픽(Fanfic) 현상을 다시 불붙게 했다.

소설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트와일라잇』을 시작으로 『뉴문』(*New Moon*, 2006), 『이클립스』(*Eclipse*, 2007), 『브레이킹 던』(*Breaking Dawn*, 2008)으로 이어진다. 재혼한 엄마의 행복을 위해 이사벨라 마리 스완(Isabella Marie Swan)은 피닉스(Phoenix)에서 친부가 있는 포크스(Forks)로 오게 되고 학교에서 만난 에드워드 안소니 메이슨 컬렌(Edward Anthony Masen Cullen)에게 이끌린다. 에드워드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벨라는 그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전통적인 로맨스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사랑의 시련은 이 텍스트에서는 다른 뱀파이어 종족 제임스(James)가 벨라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이다. 강력한 에드워드는 벨라를 구해내지만, ‘사랑하기에’ 벨라를 떠난다. 흔한 로맨스가 그러하듯이, 그런 벨라를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또 다른 남자, 이후에 늑대인간이 되는 제이콥(Jacob Black)이 있다. 통속적 플롯을 답습하여 벨라가 자살했다고 생각한 에드워드 본인도 그녀를 따라 자살하기로 결심하는데 그들이 다시 재회하는 상황을 위한 필수적 개연성으로 뱀파이어의 조상 볼투리 가(Volturi Family)가 개입한다. 향후 벨라가 뱀파이어가 되겠다고 언약하는 것으로 볼투리 가를 설득한 뒤, 오랜 숙적 관계였던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은 연합하여 제임스의 복수를 계획하던 빅토리아(Victoria)를 물리친다. 에드워드와 벨라가 결혼을 하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뱀파이어인 딸 르네즈미(Renesmee)를 낳는 과정에서 벨라가 인간으로서 거의 죽음에 이르자 그녀는 ‘드디어’ 에드워드에 의해서 뱀파이어로 변신한다.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 전에 또 다시 생기는 장애물은 어느 뱀파이어 일족이 르네즈미를 불멸의 아이라고 오인하여 볼투리 가에 고발하는 사건이다. 컬렌 가족은 이것이 거짓임을 입증하여 마침내 이 작품은 ‘예정된’ 해피엔딩에 이른다.

국내에서의 비교적 조용했던 반응과는 달리 이 시리즈물은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메가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특히

미국에서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1억 16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미국 내 영-어덜트(young-adult)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조앤 K. 롤링(J. K. Rowling)을 잇는 작가로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메이어가 거둔 성공은 X세대의 뒤를 잇는 신세대, 밀레니엄 세대, 차세대, 또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2세라는 뜻에서 에코부머(Echo Boomer)라고도 불리는 Y세대²⁾에 빛진 결과이기도 하다.

트와일라잇 열풍 읽기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어떻게 미국인들의 잠재의식(sub-conscious)³⁾을 포착하는가?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드라큘라』(Dracula, 1897)의 드라큘라 백작이 동유럽 실존 인물 블라드 체페슈(Vlad Țepeș)와 헝가리의 페렌츠 나다스디(Ferenz Nadasdy)장군의 백작부인, 에르체베트 바토리(Erzsebet Bathory)에서 탄생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후 드라큘라 백작은 미국 작가 앤 라이스(Anne Rice)의 뱀파이어 연대기에서 원본과는 달라진 미국적 뱀파이어로 변형 발전되었다. 마찬가지로 메이어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증상으로 보여주는 오래 된 뱀파이어들, 미약한 인간, 뱀파이어와 대결 구도에 놓인 늑대인간(werewolf) 종족을 배열하였다.⁴⁾ 우리는 주저 없이 ‘트와일라잇 사가’를 뱀파이어 문학이라고 속단하지만, 메이어가 자신의 작품들이 뱀파이어 문학이 아니라 뱀파이어가 나오는 로맨스물이라 주장하는 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우리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고, 서로 얽혀 있고, 뒤죽박죽이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⁵⁾라고 언급하듯이 삼각관계의 로맨스, 혼

2) 대략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은 ‘Born Digital’ 세대로서 과학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미디어에 익숙하며, 동성 간 결혼이나 LGBT(동성애, 양성애 등 이성애 외의 다양한 성적정체성을 가진 자) 커뮤니티 등 통념을 깨는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적, 개방적이다.

3) 여기서 잠재의식이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견해를 따라 무의식(Unconscious)을 대체한 용어이다.

4) 왼쪽부터 블라드 체페슈, 에르체베트 바토리, 그래픽노블 『트와일라잇』 표지, 영화 『트와일라잇』 포스터이다.

란스럽고 변덕스러운 주인공들, 애증과 복수, 갈등과 연합 같은 원초적 감정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텍스트에 뒤섞여 있다.

경제침체와 9-11테러 오래 전 종결된 냉전체제 이후 IT 산업이 출현하고 전체적 산업이 현대화 디지털화되면서 초 슈퍼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흔들리게 되었다. 전반적 세계 경제침체 상황에서 결코 가난과는 무관해보였던 미국에서도 파산자, 실업자, 거리의 노숙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극심한 실업 사태는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노동 예비군’(reserve army of labour)으로 이름붙인 집단내로 미국인들마저 다수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초엽,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은 화염과 건물 붕괴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이미지로 실시간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슬람 세력의 이 악행을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미국이 대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과잉’이 그들 스스로를 파괴한 현상이라고 말한다.⁶⁾ 전통의 부재라는 콤플렉스를 애써 감춰 온 미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언제 가해질지 모르고 저항할 수도 예견할 수도 없는 외부적 힘을 부각시키며 치유 불



블라드 체페슈
(1560-1614)



에르체베트 바토리
(1431-1476)



김영작가의
『트와일라잇』표지



영화『트와일라잇』
포스터

- 5) William James. *Pragmatism*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5), p.p. 17-18
참조. 정상준. 「포스트모더니즘과 연대의식」,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II: 문화. 경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 127에서 재인용.
- 6) Slavoj Žižek,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Five Essays on 11 September and Related Dates* (London: Verso, 2002). 이현우. 김희진 역,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11 테러 이후의 세계』 (서울: 자음과 모음, 2011). p. 6.

가능한 트라우마(trauma)로 남았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기에 불안해진 미국여성들이 선택한 것은 판타지로의 도피, 현실 도피를 꿈꾸는 백일몽일 지도 모른다. 국가적 안보를 확신할 수 없게 된 미국인들이 다시 도래할 지 모르는 또 다른 9-11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강력한 존재로 변신하려는 잠재의식을 메이어는 에드워드와 벨라를 통해서 건드린다. 기술과 진보가 늘 인간 행복의 전제조건인지를 재고하게 만드는 사회 상황은 시대를 역행하여 21세기에 19세기의 낭만주의를 향수하는 ‘트와일라잇 사가’에 주목하게 한 것이다.

벨라. 평범하지만 특별한 신여성(new woman)? 영문학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드디어 귀족, 기사, 귀부인이 독점하던 주인공 자리를 일반인들,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배분하게 되었다. 비록 영화에서 에드워드나 제이콥에게 예쁘다는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소설 속의 벨라, ‘트와일라잇 사가’의 여주인공은 완벽하지 않은 미국여성의 자화상이다. 소설의 초반부터 줄곧 부모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동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벨라에게는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다. 채식주의자로 살아온 뱀파이어 에드워드가 “완전히 미칠 것 같은 향기를 지닌”(Twilight 307)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읽을 수 있는 에드워드가 “생각을 알아낼 수 없는”(Twilight 262) 사람이 바로 벨라이다. 언제나 달콤하고 안락한 가정을 제일의 가치로 강조해왔지만 현 미국의 가정은 붕괴 위기에 있다. 이혼한 엄마의 새로운 사랑을 배려하여 벨라는 아빠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장소”(New Moon 5), 안개가 자욱해서 음울한 소도시 포크스로 간다. 미국 내 부모와 아이의 자리가 뒤바뀌는 상황에 놓인 일찍 철들어 버린 ‘벨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벨라를 두 남자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다가 욕먹는 무기력한 여성이라고 본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용감하게 뱀파이어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뱀파이어로 변하는 순간 드디어 벨라는 주체적으로 에드워드와 동등한 존재로 자립한다. “에드워드, 그가 속한 곳은 바로 여기. 동화 속

세계이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와 함께 동화 속에 있었다.”(*Breaking Dawn* 479)고 독백하면서 기없는 소녀를 벗고 스스로 강해진 벨라는 새러 그랜드(Sarah Grand)가 자신의 소설 『천상의 쌍둥이』(*The Heavenly Twins*, 1893)에서 처음 언급하여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또 다른 차원의 ‘신여성’이 된다.

‘초식남’에서 ‘꽃미남’ 혹은 아버지 에드워드는 도저히 현실에서는 없을 것 같은 불멸인데다 강력하고 멋진 남자친구이자 사실상 벨라의 아버지를 대체하는 뱀파이어다. 게다가 컬렌가(Cullen family)는 인간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가정이기에 에드워드를 근래에 유행했던 용어, ‘엄친아’에 등극시킬 만하다. 에드워드는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유한 ‘꽃미남’이고 아무런 대가없이 벨라에게 헌신하며 미국 현실과는 모순된 혼전순결을 고집하는 “햇빛 아래에서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수천 개가 박힌 것처럼 반짝이는”(Twilight 260) 존재다. 작품에서 여러 번 드러나는 혼전 순결 문제는 저자 메이어가 몰몬교도였다는 점을 배제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꿈꾸기에 문란한 성적 무법천지를 현재의 쾌락을 지연시키는 판타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미국 여성들의 숨겨진 소망을 자극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 여성들이 에드워드에게 헌정한 열광은 순정만화로 더 정확하게는 또 다시 완벽한 로맨스로 향하는 욕망의 표현 같다. 다수의 남성들도 여성들의 폭발적 반응과 분위기에 휩쓸려 ‘트와일라잇 사가’의 소비에 동참하였다.

인종과 ‘호모서케르’(Homo Sucker) 미국의 구성적 특징,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다양한 인종들과 그들의 문화적 총체를 인정하려는 열린 태도이다. ‘트와일라잇 사가’는 백인들, 같은 뱀파이어지만 너무나 다른 뱀파이어 종족들, 늑대인간 종족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멜팅 팟(melting pot)의 미국을 보여준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지만, 이웃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처럼 인종을 초월하는 평화와 공존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생기는 갈등은 뱀파이어들 간의 견해 차이와 같은 종족 내에서의 투쟁과 대결, 킬링가

(Quileute family) 늑대인간과 뱀파이어들의 순간적 연합, 조약을 맺고 파기하는 것과 같이 현실 도처에 존재하는 감정으로 제대로 나타난다. 다양한 인종들에 뒤섞여 누가 미국의 진정한 원주민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백인 여성 벨라 스스로도 포크스에 있는 자신을 “소외당한 이방인”(Twilight 22)으로 느끼기 때문에 매혹적인 이방인 에드워드를 사랑하게 된다. 벨라의 마음을 자주 흔들어놓는 늑대인간,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제이콥도 또 다른 이방인으로서 슬픈 역사를 지나온 인디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의 관계 중심에서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부각되는 동시에 ‘타자에게 반하는’ 미국 여성들의 낭만적 이상이 드러난다.

현실은 꼭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는 로드니 킹(Rodney King)을 구타한 백인 경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촉발된 1992년의 L.A. 사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지젝은 자신의 저서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11 테러 이후의 세계』에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말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⁷⁾를 차용하여 현대 지배적인 자유주의의 주체성 양식을 호모 서케르라고 칭했다. 호모 서케르는 타인을 착취하고 조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자신이 먹잇감이 되는 마는 (미약한, 필자 강조) 인간이다.⁸⁾ 벨라, 에드워드, 제이콥이 보여주는 사랑의 삼각관계는 그저 그런 로맨스로 포장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

7) 이탈리아 철학자 아감벤은 현대인의 삶을 ‘호모 사케르’라 정의한다. ‘성스럽게 되다’와 ‘저주를 받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sacer’라는 라틴어에서 파생한 호모 사케르는 고대 로마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사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모든 권리를 잃게 되어 숨만 쉬는 단순한 생명체로 살아가야 했다. 극단적인 경우 누군가 호모 사케르를 살해한다 해도 살인자는 그 일로 처벌받지 않았다. 살해는 가능하지만 제물이 될 수는 없는 존재, 호모 사케르는 육체적으로 살아있기는 해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예외상태의 인물이다(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P, 1998), p.p. 45-47, p.p. 155-60) 표광민. 「왕따, 호모 사케르」. 2012. Retrieved on Oct. 20, 2013.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39>). 첫 부분 인용해서 다시 씀.

8) Slavoj Žižek,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Five Essays on 11 September and Related Dates*. (London: Verso, 2002), p. 104.

한 하나의 자아를 소유하지 못한 ‘준 자아들(quasi persons)’의 불안한 조합이고 단지 우연적으로 개별적 필요성들이 임의적으로 결합된 집합체⁹⁾임을 시사한다. “영화 『매트릭스』(*Matrix*, 1999)에서 주인공 네오(Neo)를 연기했던 키아누 리브스(Keanu Reeves)가 세계전쟁 후 폐허가 된 시카고(Chicago)를 바라볼 때 저항군 지도자 모르피어스(Morpheus) 역의 로렌스 피쉬번(Laurence Fishburne)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¹⁰⁾라고 말한다. 바로 그러한 ‘실재의 사막’에 직면할 때 백인들, 뱀파이어, 늑대인간처럼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이 우연적이고 가변적이며 불안정한 호모 서케르가 되는 것일까?

즐작보다는 결작에 조금 더 가까운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릴 때마다 사 람들을 모여들게 만든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줄리 보스먼(Julie Bosman)은 “문화적 현상”으로 주목했으며¹¹⁾ 크리스털 맥(Crystal Mack)이 쓴 기사에서 셰릴 글래드펠터(Cheryl Gladfelter)는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선반에 놓여있을 틈이 없이 계속 대출 중”이라고 말한다. 이 시리즈가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이유를 장르(뱀파이어, 로맨스, 판타지 등의)의 성공적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¹²⁾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듭 질문하기에 살아있는 존재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존재를 향한 질문과 대면하기를 미루면서 이상향만을 설정한 것은 아닐까? 오컬트¹³⁾적인 미신, 환상을 선택하여 진정한 진보나 발

9) R. Rorty, “Freud and Moral Reflection” *Essays on Heidegger and Others: Philosophical Papers 2*, (Cambridge: Cambridge UP, 1991): 147, 155. 정삼준, 「포스트모더니즘과 연대의식」,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II: 문화, 경제』, p. 118에서 재인용.

10) Žižek, *Welcome to the Desert*, p.p. 28-29.

11) Bosman, Julie. “Book Stokes Vampire Fever at Stores’ Parties.” 2008. Retrieved on Oct. 20, 2013. (http://www.nytimes.com/2008/08/02/books/02meyer.html?_r=0).

12) Mack, Crystal. “Local Libraries Prepping for ‘Twilight’ Finale.” 2008. Retrieved on Oct. 20, 2013. (<http://prev.dailyherald.com/story/?id=223445>).

13) 오컬트의 어원은 오컬트(Occult) 또는 오컬티즘(Occultism)은 라틴어 “오쿨투스(Occultus: 숨겨진 것, 비밀)”에서 파생된 것으로 초자연적인 요술이나 주술, 심령,

전과는 동떨어진 치기어린 뱀파이어되기는 다시 강대국되기 소망의 발현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말한 ‘인지적 지도 그리기’(Cognitive Mapping)를 미룬 채 애써 현실의 직시를 외면하는 부질없는 낭만주의로의 회귀는 아닌가?

작품에 대한 찬사와 혹평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작품의 완결을 아쉬워하는 트와일러(twilighter)¹⁴⁾의 폭발적 양산은 누구나 인정하는 가시적 현상이다. 메이어는 유럽 설화와 역사에 등장한 악령과 유령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을 골라 낸 ‘아상블라주’(assemblage)로 켈렌가의 뱀파이어들, 더 정확하게 에드워드를 산출하여 영화, 애니메이션, 각종 매체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였다. 이후 『뱀파이어 다이어리』(*The Vampire Diaries*, 2006~)의 제작자 줄리 플렉(Julie Plec)이 “트와일라잇이야말로 자신의 작품이 있게 한 이유다”라고 밝힐 정도로 ‘트와일라잇 사가’는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후속 작품에 긍정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 내에서 이 작품을 다루는 수많은 비평서가 지속적으로 출간되는 현상을 흥행 열풍에 편승해서 돈벌이 하려는 시도라고 단순하게 폄하할 수 있을까? 비평서를 통해 ‘트와일라잇 사가’를 더 알고 싶은 독자에게는 먼저 작가 메이어가 2009년 직접 써서 2001년에 한글판으로 출간된 『트와일라잇 끝나지 않은 이야기』(*The Twilight Saga: The Official Guide*, 2009)를 추천하고 싶다. 이 작품들이 통속 로맨스로 곧 사라질 것인가 결작으로 비상할 것인가는 각각의 독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메이어는 욕망하는 ‘나’를 ‘타자들’이라는 파편으로 흩어놓았으며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조합하는 일은 바로 우리들 각자의 임무이다.

점성, 예언 등 비합리적이고 신비스러움을 찾는 요즘의 문화장르를 일컫는 말로 현실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 14) 트와일라잇의 광팬을 의미하는 말이다.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주연배우인 에드워드 역의 로버트 패틴슨(Robert Pattinson)과 벨라 역의 크리스틴 스투어트(Kristen Stewart)는 트와일러 양산의 가장 큰 공헌자일 것이다.